

# 군선교 신학

11

| 한국군선교신학회 편 |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및 한국교회 군선교사역 10대 중보기도 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60만 국군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인교회를 통해 조국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꿈이 담긴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군·민족·인류복음화를 소원하는 사명자들을 위하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1999년 2월 26일 제정한 공동기도문입니다.  
군복음화로 민족복음화와 인류복음화를 위한 모든 예배·회의 등 군선교사역과 관련된 각종 행  
사 시 공식순서에 포함하여 함께 낭독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 생명력 있는 군선교사역 합심기도 제목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1.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의 결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2. 2020년까지 전 국민의 75% 이상의 3,700만 기독교 신자 국가가 건설되게 하시며,
3. 매년 진중세례(침례) 목표 20만 명 결실을 맺게 하옵시며,
4. 매년 20만 명 군인 신자 결연과 1천여 군인교회의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 프로그램을 하게 하시며,
5.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군선교사역의 책임 있는 기도 실천을 하게 하시며,
6. 260여 군종목사, 380여 군선교 교역자, 기독교인(MCF) 회원들과 가족들의 군선교사역을 인도하시며,
7. 장병들의 병영 내 사고 예방, 사기 진작, 명량한 생활로 기독교문화가 확산되게 하시며,
8. 모범 국민 육성 및 기독 인재 양성을 위한 군종병과의 발전을 이루어 주시며,
9. 군선교회원교회의 후원과 사랑의 양육 및 VIP(귀빈) 가족전도 등 10대 실천 프로그램을 하게 하시며,
10. 기독청년들의 정체성 확립 및 군선교사 훈련(군입대자 비전캠프) 참여와 생명력 있는 삶(군복무/직장/결혼/가정/교회)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48년 군목제도가 창설되고 1969년에 전군신자화운동이 시작, 이후 세례운동, 군인교회 건축 등 군선교가 활발하게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1998년부터 ‘비전2020실천운동’이라는 전략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궤도를 향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군선교 사역은 교회부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으로 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 전력화로 강군육성의 중심이 되었고, 사회적으로는 가치관 혼란시대에 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온전한 가치정립을 가능케 해 모범 국민 육성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비전2020실천운동은 군인교회에서 진중세례(침례)사역의 결실로 2020년까지 기독교 신자를 전 국민의 75%까지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군 내외에서 귀한 섬김을 다해 왔는데, 금년에 우리는 더 건강한 사역을 실천하고자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와 향후과제”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수치적인 결과에 너무 매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비전2020실천운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선교전략 중 하나인 것입니다. 전략의 목표대로 현재까지 되지 않았다고 청년들을 전도하고 세례 주고 양육하는 사역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결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전도해서 세례 주고, 후원하고, 양육 관리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눅 10:37)는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힘써야 합니다. 비전2020실천운동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입니다.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고 양육하여 개교회의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장 내게는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께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더 열심히 사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도록 합시다.

비전2020실천운동은 하나의 슬로건이 아닙니다. 민족과 국가를 살리는 애국운동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대명을 따르는 신앙운동입니다. 그 비전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루는 일은 우리의 과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2020년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매진해야 할 사역인 것입니다.

본 논문집에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역사적·비평적 연구”,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 평가” 등 비전2020실천운동을 다각도로 점검한 논문들이 실려 있으며 “『조선예수교장로회훈장례식서』에 나타난 세례식 순서에 관한 연구”, “군상담의 이해와 발전적 제안” 등 군선교사역에 참고가 될 논문들과 2013년 논문공모 당선작들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조록 제13회 심포지엄과 「군선교신학」 제11권을 통해 군선교사역자들이 다시금 힘을 내어 비전2020실천운동에 새로운 불을 붙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되시는 이종윤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연구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책이 출간되도록 애써 주신 쿤란출판사 이형규 장로님과 사무처 사역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군종목사님들과 군선교 교역자, 독자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곽선희 목사

비전2020실천운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17년의 세월이 흘렀다.

목표지점을 7년 남겨 두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전략과 열매를 재평가 하여 2020년까지 민족의 75%를 그리스도인화(化)하는 민족복음화운동을 반드시 이루고자 이번 「군선교신학」 제11권은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계획을 특집으로 묶었다.

수적 목표에 미급했다고 궤도수정을 해서도 안 되고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에 지금까지 해온 전략 중 긍정적인 면과 다소 비효과적인 면을 찾아 더 격려할 것과 새로운 방법을 연구 모색하고자 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비전을 깊은 기도와 헌신된 삶을 통해 받은 선배들의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 정신이 우리 국군장병들의 가슴마다 깊이 심겨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에 교두보가 되기를 기도한다.

이번 호에도 본 학회 연구위원으로 수고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군종 목사님들의 주옥같은 글들이 우리의 병영생활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고 비전2020실천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될 터이니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 논문집에 원고를 써주신 집필자 제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3년 10월 23일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 이 종 윤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 2

머리말 | 박선희 목사... 4

발간사 | 이종윤 목사... 7

## ■ 제13회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

11 비전2020실천운동의 역사적·비평적 연구 | 이종윤·김대덕

49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

—1004군인교회를 중심 | 정재원

92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에 대한 논찬

—1004군인교회를 중심 | 이규철

96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군선교회원교회 중심 | 주연중

128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에 대한 논찬

—군선교회원교회 중심 | 강사문

## ■ 연구위원 논문

138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 평가 | 이규철

168 『조선예수교장로회훈장례식서』에 나타난 세례식 순서에 관한 연구  
| 최석환

190 하나님과 이웃 섬김에 대한 이론과 실제 | 강사문

214 ACT(수용전념치료) 소개: 기독교와의 만남 | 김동연

241 한국교회의 신학적 문제점 | 안명준

264 경제위기에 대한 성경적 진단과 신앙적 대처방안 | 김성봉

290 “여호와와의 전쟁신학”이란 안경으로 읽는 성웅 이순신 | 김진섭

333 순교자 박연세 목사의 민족운동의 행적 | 김수진

366 아랍 스프링 이후 아랍 국가의 정치적 상황 연구 | 전호진

385 군상담의 이해와 발전적 제안 | 김상만

■ 제10회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논문공모 당선작

394 장병 인권에 관한 군선교 전략과 과제

— 군종목사후보생의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 신종훈

420 집단개종과 진중세례 그리고 진중서약식 | 강찬영

군선교신학 제11권 제13회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

비전2020실천운동의  
역사적·비평적 연구

Vision 2020 Movement in Historical-Critical Study

■ 이종윤 Lee, Jong Yun

■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

■ 김대덕 Kim, Dee Duk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총무



1. 들어가는 말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우주적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면 완성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에 사람이 만든 계획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는 것이다. 복음사역의 대전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하여 순복하고 순응하면서 민족구원을 위한 뜻과 목표, 전략, 전술을 개발하고 성경을 통



해 답을 찾고, 또 그것을 수정, 보완하여 더 좋은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6-9절의 말씀처럼 바울의 역할은 심는 일이요, 아볼로리의 역할은 물 주는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곧 인류 구원을 향한 복음사역의 주인이시며, 선택받아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청지기일 뿐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 속하는 인류구원의 대 드라마 속에서 60만 국군장병 복음화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비전2020실천운동사역도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이다.

필자는 지난 1998년 2월 23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내 부설기구로 ‘비전2020실천운동본부’ 개설 예배 특강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을 포함한 한국교회 군선교사역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에 둔다.

(1) 주님의 대명을 따라 AD 2020년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군인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한다.

(2) 진중세례식을 통해 매년 22만 명 이상의 장병이 복음화되도록 한다. 남자 20여만 명이 세례를 받게 되면 25년 동안 500만 명이 신자화되므로 그들이 가정을 가질 경우(고별료 가정처럼) 효과적으로 가정복음화가 될 것이다.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기여한다. 1996년 현재 1,200만 신자(인구 4,500만의 25%)를 갖고 있는 한국교회가 2020년에는 3,700만 신자(인구 5,000만의 75% 이상)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게 될 것이므로 세계선교의 사명을 더 크게 감당, 즉 현재 기독교인 수의 0.04%에 해당하는 선교사 3,000명에서 2020년에는 0.1%에 해당하는 선교사 30,000명을 파송할 수 있도록 한다.

(4) 복음의 능력으로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북한의 인민군 100만 장병도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군선교를 통해 이룩하게 된다.

이 일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연구실천해야 한다.

\* 통일 신학을 정립하는 일

\* 복음화된 통일조국에 대한 비전을 한국교회 전체가 사명으로 받도록 하는 일(느헤미야 전략)

\* 비전2020운동을 통한 양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관한 일 등이다.<sup>1</sup>

조국 대한민국 복음화를 향한 구체적인 청사진인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실천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이다. 우리는 이제 목표점인 2020년이 7년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난 17년간의 결실과 부족했던 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적인 부분은 물론 저출산, 군복무 기간 단축, 입영자원의 감소, 치열한 종교 간 영적 경쟁, 병영시설 및 시스템 등 환경변화 등 군 내부의 상황도 크게 달라졌다. 이 비전이 한국교회 21세기 기독교 운동으로 선포되던 시점의 한국교회의 대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 그리고 신뢰도가 지금은 크게 위축되고 실추되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군선교사역이 청년전도의 유일한 대안이라 할 만큼 중요한 사역임을 인정하면서도 개교회 지도자는 현실적 양적 부흥에만 급급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투자에 인색함과 무관심 등으로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이 추구하는 진중세례뿐만 아니라, 양육과 지역교회 연결을 통한 출석예교인으로 관리하고 그 가족들을 전도하여 개교회 성장과 부흥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는 점이 약해진 것도 큰 변이 중 하

<sup>1</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실천운동 교육 자료집」(1999. 4. 17), 22-23. 「군선교신학」1(2004. 5. 30), 30-47.

나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부흥의 불길을 지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과 목적의 비전이 훼손되지 않고 중단 없이 계속 전진을 하되, 지혜로운 중간평가와 함께 그 목표를 성취하는 향후과제에 대하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 2.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까지

지난 2012년 5월 19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설립 40주년,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육군훈련소(소장: 김정호 장로) 연병장에서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며 최고의 찬사와 함께 관계자들을 칭찬하신 걸작품이 만들어졌다. 당시 훈련소 입소 인원 약 1만 2천 명 가운데 9,519명이 참석하여 8,506명이 세례를 받고 1,013명이 축복 기도를 받은 연무대교회(담임: 신현복 군종목사) 진중세례식이 집례되었다.

지구촌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이런 영적 사건이 언제 있었으며, 향후에도 다시 이런 거룩하고 감격적인 지구촌 최대의 세례예식이 집례될 수 있겠는가?

“지난 1990년 당시 육군 교육사령관인 김진영 장로(육군참모총장 역임, 현재 MEAK 비전2020실천운동 본부장)는 육군 제2훈련소(현재 육군훈련소)를 중심으로 제2기 진중세례운동을 시작, 1993년 참모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바른 신앙으로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극대화한다는 취지에서 자연스럽게 전군으로 확대하여 계통대에 육·해·공군 본부교회 새 예배당 건축사업과 함께 한국교회는 새 도약의 군선교사역을 펼치게 된다.”<sup>2</sup>

우리나라의 군선교사역은 1948년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의 제안으로 정달빈 목사로 하여금 군종사역을 시작하게 했으나 군종목사 제도는 기독교 신자가 불과 전체 국민의 약 5-6%일 때, 그것도 동족상잔의 비참한 역사로 일컫는 6·25전쟁 중에 창설(1951년 2월 7일 국가제도로 육군에

서 시작)되었다. “1969년 9월, 당시 1군사령관 한신 장군에 의하여 ‘1인1종교갯기’라는 ‘전군신자화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백낙준 박사, 김옥길 총장 등이 나서서 이미 1965년 김활란 박사에 의해 시작된 ‘전국복음화운동’의 민족복음화운동에 발맞춰 본격적인 ‘60만 국군장병복음화운동’이라는 새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초교파 범교회적으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설립되었다.”<sup>3</sup>

198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본격적으로 군복음화 운동을 전개하면서 진중교회당 건축에 박차를 가해 “1990년부터 비전2020실천운동이 21세기 기독교 운동으로 선포되던 1998년까지 약 9년 동안 교회당이 진중에 무려 354동이 건축되었는데, 1004군인교회의 약 35%에 해당된다.”<sup>4</sup> 집을 세웠으니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응한 결실이 장병영혼 구원운동을 민족복음화라는 청사진으로까지 전개한 ‘비전2020실천운동’이다.

한편 1990년 육군훈련소를 중심으로 시작된 장병전도세례운동은 해를 거듭할수록 폭발적인 결실 증가와 함께 전군으로 확대되면서, 진중세례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양육 및 전역 후를 대비 지역교회로 연결시켜, 실질적인 민족복음화와 한국교회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뜻이 모두들에게

<sup>2</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실천운동 교육 자료집」(1999. 4. 12), 10.  
〈비전2020실천운동 결의대회〉(1998. 11. 13) 경과보고내용>

<sup>3</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2차 정기총회 보고서」(2013. 2. 21), 207.  
설립 당시에는 ‘전군신자화후원회’로 창립되어 1976년 7월 20일 ‘군복음화후원회’로 개칭되었다가 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이 시작되면서 1999년 2월 9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로 개칭되었다. 군선교연합회는 사단법인체로 기독교 종단 군선교 대표 전문기관으로서 기독교 군종활동 지원 및 군선교사역 단일 창구로서의 진중교회당 건축, 비전2020실천운동, 정책, 교육, 복지, 전도,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서 군목 파송교단과 함께 연합사역을 총괄하는 센터이다.

<sup>4</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1004군인교회 총람집」(2011. 5. 29), 845.



공감대를 형성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때 한국교회 군선교사역 40주년 기념사업인 육·해·공군 본부교회당 헌당예배(1996년 4월 25일)를 전후로 합참의장을 지낸 이필섭 장로에 의해 “1996년 기준 한국교회 신자 수를 1,200만 명이라고 할 때 매년 장병 22만 명을 전도하여 세례교인으로 만들고 사회에서 세례 받고 들어오는 장병들이 최소 3만 명에서 5만 명이라고 볼 때, 매년 평균 25만 명 기독교장병들을 사회로 환원하면, 2020년 기준으로 25년간 625만 명이 되며, 군세례신자가 친구,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최소한 3명 이상에게는 복음의 영향력이 전도의 결실을 맺으면 본인을 포함하여 625만 명 곱하기 4명을 하면 그 합계가 2,500만 명이 되며, 1996년 당시 기독교인 1,200만 명을 합하면 3,700만 명이 된다. 그 인원은 전체 국민을 5천만 명으로 기준했을 때 75%가 된다”<sup>5</sup>는 전략이 제시되었다.

또한 처음에 창안되었을 때는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가 표제였으나, 시대적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목표연도였던 2020년을 슬로건으로 내걸게 되어 ‘비전2020’이 되었으며, 군선교연합회 내에 전담 특별부설기구로 만들면서 최종적으로 ‘비전2020실천운동’이라는 민족복음화의 청사진이 한국교회에 제시되었던 것이다.

그 후 비전2020운동은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중에 1997년 11월 20일 당시 군복음화후원회 정기이사회에서 ‘비전2020실천운동본부’를 부설기구로 조직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 해인 1998년 1월 30일 정기이사회에서 사업계획 인준과 실천운동 위원장에 이사 이종윤 목사, 실천운동본부장에 이사 이필섭 장로를 선임하였다. 또한 1998년 2월 5일 군종목사 파송교단 정책회의를 통해 계획 설명과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1998년 2월 9일 군복음화후원회 제27차 정기총회에서 ‘비전2020실천운동본

<sup>5</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국가안보와 비전2020실천운동 -특강내용 수록”, 『비전2020실천운동 교육 자료집』(1998. 11. 13), 39.

부’ 조직 및 운영계획을 승인받아 1998년 2월 23일 역사적인 ‘비전2020실천운동본부’ 개설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다. 또한 각 교단으로부터 연결 군인신자를 관리할 대상교회로 약 2,900교회를 추천 받았으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해 본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한 교회가 1998년 11월 12일 총 918교회가 등록하여, ‘비전2020운동실천교회’ (군선교회원교회)로 인정하여 등록증 및 실천교회 간판이 전달되었다. 군내로는 당시 정부정책인 “국민의 사랑받는 군대육성”이라는 정책에 발맞춰 군세례신자를 지역교회로 연결시켜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민·군 연합의 교두보가 되도록 했으며, 실무적인 시스템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전산 시스템을 구축, 군인교회, 지역교회, MEAK 중앙본부 및 전국지회의 네트워크화를 이루어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8년 11월 13일은 한국교회사적으로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 비전2020실천운동을 군내적으로는 한국군종목사단의 결의와 한국교회적으로 군목파송 10개 교단 결의를 통해 국가적으로는 ‘애국애족운동’, 군으로는 ‘신앙전력화운동’, 교회적으로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21세기 기독교 운동’임을 선포하는 비전2020실천운동 결의대회가 전국 교회와 교단, 관련기관 대표자 및 관계자들 약 1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성대하게 예배와 특강, 결의대회로 진행되었다.<sup>6</sup>

민족복음화를 향한 비전2020실천운동은 군인교회 내부적으로나 한국교회적으로나, 공적 절차를 통해 한국교회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비전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실천하는 순수한 영혼구원사역이요, 민족구원이라는 가장 구체적인 작전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sup>6</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실천운동 교육 자료집』(1999. 4. 17), 10-16.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군대를 그 도구로 삼으셨다. 이는 20대 청년전도의 사역을 성취하시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사역임을 믿고 우리는 항상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짧은 교회역사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 오던 한국교회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1970-80년대 중반까지의 교회부흥과 성장의 모습은 그림자같이 사라져 버리고, 20세기 말 1990년부터 침체에 접어들면서 교회개혁과 불신자 전도, 특별히 청년전도인 캠퍼스 선교는 그로기(groggy) 상태가 되어 버렸다. 한국교회의 현재 모습은 만신창이가 되어,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부딪힌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낙망할 필요가 없다. 성령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부흥과 쇠퇴의 공식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결단코 변절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위기의 한국교회 탈출구로 삼으사, 1990년부터 육군훈련소에서 불씨를 지펴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병전도와 진중세례의 중심인 비전2020사역은 계속 진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실패가 없다. 풍성함도 빈곤함도 강함도 약함도 넉넉함도 모자람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있기에 비전2020사역은 지금은 물론이거니와 2020년이 지나서도 민족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속 실천되어 갈 것이다. 우리는 2020년이 불과 7년 앞으로 다가왔다고 해서 긴장할 필요가 없다. 지금의 상황이 사람의 눈높이와 평가로 암울하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비전2020실천운동’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직접 기획하고 연출하시며, 그 완성의 시간과 진행방법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신다. 왜냐하면 성경적 복음사역의 원리요 원칙이 그렇기 때문이다. 민족복음화를 향한 ‘비전2020사역’은 군선교를 통해서 중단 없이 계속

실천해 나가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깊이 새겨야 한다.

### 3. 비전2020운동의 준비단계와 내용

필자는 지난 1998년 2월 23일 ‘비전2020실천운동본부’ 개설예배 때 당시 군복음화후원회 비전2020실천운동 위원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특강을 한 바 있다.

#### 1) 목표설정 —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

“비전2020운동의 신학적·실천적 고찰”이라는 주제특강을 하면서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군선교사역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스라엘의 통일노력과 통일신학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정립한 바 있다.

① 이스라엘의 남북분단은 지배계급(권력자)들의 권력욕에서 기인된다. 한국의 남북 분열도 우리 자신의 책임이 없을 수는 없으나 다분히 미·소 양 진영의 패권주의와 당시 민족지도자들의 사욕이 없었다면 상황은 전혀 달랐을 것이다. 다윗을 이상형으로 제시한 역대기 신학이 있지만 사무엘서에 의하면 다윗의 역할은 훨씬 축소되고 대신 백성의 역할이 증대된다. 통일을 이룩하는 데 백성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한 포로기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② 무력 통일 정책은 서로에게 상처만 더했을 뿐 통일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③ 역대기에서 온 이스라엘 사상이 강조되었다. 종족이나 지리적 면에서 민족 동질성이 강조되었다. 한 민족, 한 형제성이 강조되므로 서로 비방하고 원수로 여겨서는 안 된다.

④ 히스기야, 요시아 왕 때엔 북쪽 동포들을 초청해서 유월절을 지켰다. 민간 차원의 상호교류가 독일 통일을 앞당겼음을 기억하자.

⑤ 역대기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하나님이 버리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역사하심을 인정해야 한다.

⑥ 통일을 위해서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아 서로 연결하고(에스겔의 경우처럼),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야 한다.

⑦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통일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겸손한 자세로 통일을 기다렸다.

⑧ 결국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민족복음화를 앞당기는 군선교를 구체화해야 한다.<sup>7</sup>

위와 같이 밝히면서 비전2020실천운동은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임을 신학적으로 조명한 바 있다.

## 2) 작전 지침 — 느헤미야 작전 적용

“복음화된 통일조국에 대한 비전을 한국교회가 사명으로 받고, 이를 실천케 하는 일: 느헤미야 작전을 실천함으로”라는 내용에서 BC 445부터 BC 432까지 예루살렘 총독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의 전략을 우리의 군선교 작전 지침으로 삼자고 한 바가 있다. 그 내용의 핵심제목은 다음과 같다.

- ① 우선권 선정을 바로 하자.
- ② 중간 지도자의 사역을 감당하라.
- ③ 느헤미야처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 ④ 기지(tact)를 바르게 발휘하라.
- ⑤ 정직하게 하라.

<sup>7</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실천운동 교육 자료집」(1999. 4. 17), 27.

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⑦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라.

⑧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sup>8</sup>

## 3) 비전2020운동의 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비전2020운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제시해 본다.

① 일반 및 군인교회를 중심으로 한 비전2020운동 지회를 각각 조직 운영한다.

② 비전2020운동의 조직을 위한 세부계획지침서를 작성 발표하여 지회 창설을 돕는다.

③ 전군 기독장병을 전산관리하고, 군인교회와 일반교회가 자매결연을 하도록 하며, 기독장병들을 위한 기도 동역자를 찾아 연결시켜 준다.

④ 기독장병 영성훈련을 강화하여 복음 확산의 전초병이 되게 한다.

⑤ 일반교회의 비전2020운동에 대한 인식과 관심 그리고 기도협력을 고취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⑥ 우리의 소원인 남북통일은 반드시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에 있음을 확신하고 기도한다.

⑦ 성장이 둔화된 한국교회를 회생시키고 세계선교의 사명을 비전2020을 통해 일으킨다.<sup>9</sup>

## 4) 군인교회와 일반교회 실천세부사항

군복음화후원회 내 부설기구로 조직된 ‘비전2020실천운동본부’는 우

<sup>8</sup> Ibid., 28-30, 40-44.

<sup>9</sup> Ibid., 31, 46-47.

선 1천여 군인교회와 4만여 일반교회가 실천해야 할 전략전술을 마련하였다.

#### (1) 군인교회 전도·세례·양육·신자명단 수집 연결

최초 전략도는 군인교회에서는 우선 훈련소, 신교대, 교육사, 훈련단 등 신병교육기간 동안 집중 전도하여 세례를 집례하도록 한다는 전략 속에 장·사·병 교육기관인 44개 부대를 선정하여 입소인원대비 60% 이상(육군사단신교대 기준은 연 3천 명 이상 세례목표설정) 전체는 연간 22만 명 전도세례를 집례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군인교회마다 집중기도팀을 두어 기도 불씨를 지피 확산시켜 나갔다. 전도 및 세례집례가 끝나면 군인신자 기록카드를 수집하여 지역교회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병행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몇 년이 지난 후에는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사항’<sup>10</sup>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정리, 1004군인교회 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은 전술적인 면에서도 뿌리를 내렸다.

#### (2) 일반실천교회·기도·선교비 후원·연결신자관리·가족관리

일반교회에는 우선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 수많은 설명회와 실무담당자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병행하였다. 연간 20만 명 이상의 군세례신자를 연결 받을 준비로 기도사역과 전담부서조직과 선교비 후원과 가족전도를 하도록 홍보 및 교육하였다. 즉, 본교회 출석예정교인으로서 집중관리토록 하였는데, 차후에는 ‘사랑의 양육 10대 실천사항’<sup>11</sup>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개발, 교회별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sup>10</sup>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사항: 1) 불신전우전도-‘러브터치’ 장병전문전도지 활용 2) 전도전우세례 3) 세례전우양육-양육1단계는 주일에배출석 4) 양육전우연결-군인신자카드작성 5) 연결전우관리-지역교회 연결 여부확인 등 관리

또한 ‘사랑의 양육 10대 실천사항’ 프로그램 중 네 번째 단계인 ‘VIP가족전도’는 일반교회에서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현대교회 전도는 관계성 전도인데, 각 교회로 전달되는 기초자료 속에 지역 내 청년을 본교회가 전도하지 못하였는데 군인교회에서 전도하여 세례 주고, 세례 받은 장병들의 명단이 본교회로 올 때 그 가족의 집 주소와 세대주명과 전화번호가 제공되므로 교회에서는 고급정보를 받게 되어, 그것을 기초로 군대에 아들을 보낸 부모님들의 연약한 마음을 교회가 조그마한 사랑의 관심만 가져 줘도 교회에 대하여 우호적이면서 자연스럽게 전도되는 전략이다. 어떻게 보면 ‘VIP가족전도 10대 실천사항’<sup>12</sup>을 잘 적용하여 군세례신자 장병보다 먼저 그 가족부터 전도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의 일반 군선교 회원교회에 주어지는 특혜인 셈이다.

#### (3) 비전2020실천운동본부 조직과 운영

한국교회의 비전2020실천운동사역 전체를 총괄한다. 실천현장인 군인교회와 일반실천교회(차후 군선교회원교회로 명칭 통일)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진중전도세례·후원·연결·양육 등 전반적인 실무업무를 완전 담당하고 있다. 물론 중앙본부는 종합센터로서 전국 16개 지회와 교단, 군인교회 등과 네트워크화되어 실무사항을 총괄 담당한다. 초창기에는 전국 지역 활동에 역점을 두고 지회조직에 박차를 가하여, 2005년부터는

<sup>11</sup> 사랑의 양육 10대 실천사항: 1) 청지기 임명 2) 전도특공대(전담부서) 조직 3) 기도하기 4) VIP가족전도하기 5) 사랑의 편지 보내기 6) 선물 보내기 7) 심방하기 8) 초청하기 9) 전역 후 영접하기 10) 후원하기

<sup>12</sup> VIP가족전도 10대 실천사항: 1) 전도대상자 등록 2) 전도특공대 편성 3) 사랑의 기도하기 4) 사랑의 편지 보내기 5) 사랑의 전화하기 6) 사랑의 선물 보내기 7) 사랑의 만남 갖기 8) 사랑의 관계성 확인 9) 사랑의 복음제시 10) 사랑의 초청하기

지역은 지회에 완전히 임무를 실천하도록 맡겼으며, 중앙본부에서 봉사하는 사역위원은 주로 예비역으로서 자원봉사자이며, 서울·경기 중심의 수도권을 9개 교구로 편성하여 군선교 회원교회를 집중 관리하도록 했다.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해 모든 회원교회들이 본교회 연결 군인신자의 정보사항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본회 사역위원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나면 각종 기록사항들을 개교회별로 입력하여 차후 필요 시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sup>13</sup>

#### (4) 5단계 실천전략

지금은 환경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다소 수정 보완되었지만 초창기에 5단계로 편성한 기본전략은 군인교회와 군선교회원교회(비전2020실천교회)가 민·군차원에서 확실하게 역할분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

##### ① 1단계 전략: 입대 전 전도/양육

###### a. 민간교회/대학생 선교단과의 공조전략

- 교단별 청소년 연합집회 시 군대에서 신앙생활 소개
- 대학생 선교단체 연합집회 시 군대에서 신앙생활 소개
- 대형교회 청년/대학부 영성수련회 시 군대에서 신앙생활 소개

###### b. 민간교회별 군선교사 파송예배 전략

- 입대 직전 파송예배
- 입대 후 신앙생활 지도
- 전역 후 환영예배

###### c. 군선교사 훈련과정 설치운영

- 연 2회 기도원 활용

- 사명감 있는 평신도 군선교사 양육(군종병/기독교간부/신우회장)

##### ② 2단계 전략: 입대 후 전도·세례/양육

###### a. 진중전도/세례

- 군선교전략 요충지 집중전도/세례
- 장교 전도 및 세례
- 부사관 전도 및 세례
- 사병 전도 및 세례
- 군인가족 전도 및 세례
- 진중합동세례식 집중후원전략(민간교회와 1:1 연결 안정적 지원)
- 부대별 진중전도/세례 전략전술 개발 및 보급
- 세례신자들에게 사랑의 10대 실천 프로그램 소개

###### b. 진중 군인신자 양육(성경공부)

- 초급/중급/고급과정 양육
- 집사(안수) 후보 신자 양육
- 장로 후보 신자 양육
- 선발된 민간인 교역자를 통한 군인교회 양육
- 장병영성수련회를 통한 양육
- 군종병 집체교육을 통한 양육
- 조찬기도회를 통한 양육
- 다양한 방법을 통한 양육

##### ③ 3단계 전략: 군인신자 교적카드 수집

###### a. 통일된 군인신자 교적카드 양식 및 발송부투 활용

###### b. 연대급 이상 군인교회 담임목사가 책임지고 교적카드를 작성/발송

###### c. 대대 군종병/연대급 군종병/기독교간부/여전도회원 중 실무책임자로 임명한 후 실무를 담당(임명직분: 비전2020추진 부장/차장/위원)

##### ④ 4단계 전략: 군인신자 실천(일반)교회 연결

<sup>13</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실천운동 교육 자료집」(1999. 4. 17), 45, 49-53

- a. 군목파송 11개 교단에서 추천한 약 3천여 교회 중 본 운동에 참여  
기로 등록한 교회를 비전2020운동 실천교회(군선교회원교회)로 하  
며 군인신자를 연결하도록 함(연결통지서 월 1회 송부).
  - b. 전국을 지역별로 골고루 선정함(시는 구 단위, 군은 읍·면 단위에 1개  
처 이상).
  - c. 군선교에 관심 있는 교회/대학, 청년부 조직이 있는 교회/청·장  
년 평균 출석 300명 이상 된 교회를 우선적으로 선정함.
  - d. 연결 기준은 거주지 주소 최근 거리에 있는 실천교회로 연결함  
(전산시스템 운용).
  - e. 일반 신청 교회는 월 1회 심의하여 등록함.
- ⑤ 5단계 전략: 미래출석교인(연결된 군인 신자) 관리(양육)
- a. 방침
    - 사랑의 10대 실천 프로그램 실시
    - 전역 후 반드시 본교회 등록 영접을 확인(종결)
    - 21세기 한국교회성장 프로그램으로 발전(이론 체계화)
    - 군인신자 관리기록카드(표준양식부록)에 의하여 약 25개월 양  
육기록유지
    - 실천교회 관리기록카드에 의하여 본부에서 관리
  - b. 사랑의 10대 실천 프로그램
    - 사랑의 등록: 군인신자를 미래출석교인으로 등록
    - 사랑의 청지기: 1:1 집중관리자 선정 및 전담부서 조직
    - 사랑의 기도: 매일(1') 그 영혼, 그 부대(1')를 위해서 1분(1') 이  
상 기도
    - 사랑의 편지: 매월 서신, 주보, 책자 등 우송
    - 사랑의 선물: 절기별 기호품 선물 전달
    - 사랑의 심방: 연 1회 부대 방문심방

- 사랑의 초청: 휴가 외박 시 교회로 초청
- 사랑의 영접: 전역 시 영접 환영 예배
- 사랑의 전도: 가족전도의 기회로 활용(평소)
- 사랑의 헌금: 전도, 세례 경비 후원(1명 세례 - 3천 원)<sup>14</sup>

#### (5) 참여대중화

비전2020실천운동은 명실상부하게 ‘애국애족운동’, ‘신앙전력화운  
동’,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의 비전을 갖는 21세기 기독교 운동이며,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을 실천하는 사역인 만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기  
도운동을 가장 기본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였다. 비전2020실천운동 본부  
가 1998년 개설된 이후 2005년까지는 중보기도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약 7년간 비전2020사역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여 서명한 성도가 전  
국적으로 약 10만 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만일에 지금도 잊지 않고 중  
보기도 서명자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그 파위는 대단한 것이 될 것이다.  
물론 민족복음화를 이루자는 비전2020사역은 기도사역이 가장 근본이요  
뼈대요 핵심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을 행하시기 때  
문이다.

한편 민간교회의 프로그램 실천 참여는 1999년 21세기 기독교 운동으  
로 선포할 때에는 약 1천여 교회였으나 현재는 군세례신자 명단이 가고  
있는 교회는 전국적으로 약 4,300여 교회이다. 연결 받은 각 교회들이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적용해 4,300여 교회가 제대로 사역  
을 실천했다면 이미 한국교회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금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4,300여 교회를 중심으로 비전2020사역이 다  
시 한 번 강한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각 교회들의 상황과 여건이

<sup>14</sup> Ibid., 54-55.



다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군선교사역을 실천하기 위해서 군선교연합회는 9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sup>15</sup>

한편 비전2020사역의 대중화를 위해서 MEAK 중앙본부는 각종 교육 홍보영상물을 제작 및 보급해 왔으며,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을 제정(1999. 2. 26)하여 각종 군선교 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다. 또한 군선교가를 제정, 노래를 통해 비전2020사역의 대중화를 꾀하였다. ‘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은 국내는 물론 이미 세계화가 되었다. 그 근거로 군선교사역은 대한민국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 불문율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전2020사역을 창안하였던 전 합참의장 이필섭 장로는 지난 2002년 세계기독교인연합회 회장직을 맡았다. 그분의 공로와 덧붙여서 대한민국 교회의 진중세례를 포함한 군선교사역을 경험한 세계기독교인연합회(AMCF) 임역원으로 활동하는 각국 지도자들은 한국 군선교가 모범적이라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결코 중단 없는 비전2020사역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창대해져 가고 있다.

<sup>15</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사역 매뉴얼 22판」(2011. 3. 25), 28.

※ 군선교회원교회 실천 9모델 내용

1모델-군선교사역을 위한 중보기도, 2모델-본교회 출석 군인신자 양육/관리, 3모델-출석예정교인 양육(사랑의 10대 실천중심), 4모델-VIP가족전도, 5모델-진중세례(침례) 및 후원, 6모델-군선교 교역자 파송 및 후원, 7모델-군선교사업 참여 및 후원, 8모델-문화사역 및 위문활동, 9모델-상기 모델 중 2가지 이상 모델 실천.

## 4. 비전2020운동의 실천

### 1) 진중세례 결실과 특기사항

비전2020실천운동의 핵심사역은 장병전도 세례사역이다. 지난 1990년 육군훈련소에서 시작된 사역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23년 동안 국내 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의 큰 변화와 대통령이 일곱 번 바뀔 만큼 시간도 많이 지났으며, 국가 안보적 환경, 저출산으로 인한 입대자원의 부족과 군복무기간의 단축 등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입대자원만을 놓고 볼 때, 비전2020사역 계획을 처음 세울 때에는 연 35만 명이 입대하였으나, 지금은 연 약 28만 명이 입대하고 있다. 무려 약 7만 명이 줄었다. 군복무기간도 처음 계획이 진행될 때에는 육군 기준 복무기간이 30개월이었으나 지금은 21개월이다. 병영 생활관의 환경도 완전히 바뀌었다. 이는 군선교 전략과 전술도 현장 맞춤형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물론 군종목사 인원도 당시에는 약 350명이었으나 지금은 약 260명으로 90여 명이나 줄었다. 반면에 대대급 교회에서 사역하는 군선교 교역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완전 탈바꿈하였다. 교역자의 연령이 65세 이하로 젊어졌으며, 전문교육을 받는 등 정예화가 되고 있다.

대대급 교회에서의 양육과 기간병 전도세례도 그 바탕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결국 군종목사와 군선교 교역자의 지도력이 절대적으로 좌우한다. 물론 선교적 마인드가 있는 지휘관과 장병 구령 열정이 강한 군종목사가 콤비를 이루면 최고의 결실을 맺는다. 반면에 지휘관이 반기독교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에 군종목사 또한 소극적이고 무사안일주의적이면 세례 결실은 최악을 맞는다. 그러나 아무리 지휘관이 냉소적이라 할지라도 군종목사가 중심을 잡고 분명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지휘관의 반대적 영향도 능히 다스리면서 소정의 목표성취를 이루어 내게 된다.

다시 말해서, A라는 군종목사는 가는 부대마다 상황조건에 상관없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B라는 군종목사가 가는 부대는 아무리 상황조건이 선교적 측면에서 매우 양호한 곳이라 할지라도 형편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선교적 보안관계상 통계현황을 일일이 다 공개할 수는 없으나 몇 가지 통계를 제시해 본다.

#### (1) 연도별 수세실적 전체현황<sup>16</sup>

(단위: 명)

연도별	총계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인 원	3,554,132	177,110	184,320	182,614	171,274	174,550	153,225	154,808	162,260	161,825	155,767
연도별	2002	2001	2000	'99	'98	'97	'96	'95	'94	'93	'92
인 원	182,230	186,959	187,156	216,080	207,951	177,003	190,000	186,000	130,000	128,000	85,000

공식적인 통계가 집계된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진중 수세신자 수는 약 355만 명으로 나타났다. 놀라운 열매이다. 물론 목표치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근본적으로 입대인원 감소를 고려하면 무난한 편이다. 또한 최초 계획 시 기세레신자 수를 연간 약 3만 명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기세레신자 수는 평균 약 5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매년 25만 명 연결 기준으로 보면 약 3만 명 정도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수세신자 약 18만 명+기세레신자 약 5만 명=약 23만 명).

#### (2) 최근부대별 3년치 대비 수세 증감 현황(2010~2012년)

##### 〈육군 현황〉

(단위: 명)

구 분						10년도	11년도	12년도	증 감		구 분						10년도	11년도	12년도	증 감					
1군	2사단	2,831	2,271	1,187	-1,084	3군	6사단	3,407	2,865	2,680	-185	2작사	31사단	2,000	2,836	1,965	-871	육직	육군훈련소	63,906	71,972	76,057	4,085		
	7사단	4,016	4,046	4,646	600		8사단	2,116	1,694	1,161	-533		32사단	2,150	2,065	2,306	241		특수전교육단	581	410	653	243		
	11사단	2,024	1,349	1,711	362		9사단	2,128	2,245	2,415	170		35사단	2,005	2,229	2,155	-74		부사관학교	510	780	1,338	558		
	12사단	3,116	3,786	2,286	-1,500		17사단	2,810	2,226	2,005	-221		37사단	1,226	1,510	1,644	134		3사관학교	648	698	295	-403		
	15사단	3,104	3,681	3,364	-317		20사단	2,278	1,062	1,481	419		39사단	2,149	2,762	1,400	-1,362		육군사관학교	101	65	137	72		
	21사단	3,428	4,138	4,174	36		25사단	4,273	4,478	2,666	-1,812		50사단	4,603	3,923	2,685	-1,238		보병학교	2,552	3,061	2,389	-672		
	22사단	3,805	3,058	2,550	-508		26사단	3,712	2,496	2,566	70		53사단	2,761	2,627	1,787	-840		학군교	2,273	2,446	888	-1,558		
	23사단	1,258	819	1,248	429		28사단	1,944	2,464	3,233	769		소 계	16,894	17,952	13,942	-4,010		소 계	70,571	79,432	81,757	2,325		
	27사단	1,485	2,331	1,561	-770		30사단	2,551	2,213	1,762	-451		3군	1사단	3,126	3,488	3,191		-297	소 계	12,211	8,954	9,784	830	
	36사단	1,056	947	980	33		51사단	1,391	1,665	646	-1,019		합 계	10년도 / 164,229			11년도 / 170,789			12년도 / 164,041			증감 / - 6,748		
소 계						26,123	26,426	23,707	-2,719	수기사						1,786	2,851	2,853	2	일반부대					
소 계						38,430	38,025	34,851	-3,174	소 계						38,430	38,025	34,851	-3,174	증감 / - 6,748					

##### 〈해군 현황〉

(단위: 명)

구 분	10년도	11년도	12년도	증 감
해군교육사	3,090	3,047	2,674	-373
해병대학교육훈련단	5,915	5,193	4,458	-735
해군사관학교	94	67	47	-20
일반부대	98	387	586	199
소 계	9,197	8,694	7,765	-929

##### 〈공군 현황〉

(단위: 명)

구 분	10년도	11년도	12년도	증 감
공군교육사	8,983	4,332	4,939	607
해군사관학교	53	66	57	-9
일반부대	152	439	308	-131
소 계	9,188	4,837	5,304	467

<sup>16</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2차 정기총회 보고서」(2013. 2. 21), 68-73.

〈수세인원 3년간 대비 증감현황〉

10대비감소	10대비증가	11대비감소	11대비증가
25개 부대	18개 부대	26개 부대	18개 부대

〈수세부대 3년간 대비 증감현황〉

10년도	11년도	12년도	10대비증감	11대비증감
182,614	184,320	177,110	-5,504	-7,210

군종목사는 평균 2년 복무를 하기 때문에 3년치 통계 비교의 의미는 매우 크다. 증감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서 2년(2010-2011년)은 약 3천 명 가까운 수세결실이나 2012년 결실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휘관의 종교와 인간관계, MCF의 역할, 군종목사의 영적 파워와 지도력의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보편적인 진리는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분명한 군종목사일수록 세례 결실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금번 심포지엄을 통해 아직도 진중 합동세례식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냉소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있는 이들은 다시 한 번 복음의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현재 1004군인교회 진중세례식은 한국교회의 공적 절차를 통해 결의된 거룩한 예식이다. 육군훈련소 세례식은 군목과송 11개 교단의 공식 후원사업이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의 생각이 무슨 뜻인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대로 본인이 최선을 다해 전도하여 복음을 제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한 후에 세례식을 집례한다면 분명 더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강제세례는 있을 수 없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다. 지금의 진중세례는 완전 자율적이다. 본인이 원한다면 세례집례를 하고 계속 신앙양육을 하면서 자대에 잘 정착하도록 보살피고 지역교회로 연결되도록 모든 제반사항을 처리하면 된다.

모든 것은 상대성이 있기에 타 종교로 등록하기 전에 먼저 전도해서 세례를 집례하여 기독교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며 복음적이지 않겠는가? 지상교회의 절대적 사명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데 있다. 또한 진중세례의 전략적 보강은 매우 고무적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훈련병 중심이었으나 지금은 전천후 사역이다. 훈련 및 교육부

대에서 1차 전도 및 세례식이 집례되고, 2차는 자대 배속 후에 전개된다. 이등병에서부터 장교에 이르기까지 전체 대상이다. 제대별로는 중대, 대대급부터 군단, 군사, 본부까지 전 군인교회에서 1년에 두 번씩(전반기 6월 마지막 주일, 하반기 추수감사절) 진중세례 주일이 지켜지고 있다. 이 시스템이 더욱 정착만 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유익할 수가 있다.

훈련병 때의 세례와 기간병일 때의 세례는 다를 수 있다. 세례 자체는 동일하지만 기간병은 그만큼 심오해져 있는 상태이다. 훨씬 더 어렵지만 제대로 전도하고 세례를 집례한다면 최고의 이상적 결실을 거둘 것이다. 군인신자 교적카드도 정확히 작성할 것이고, 주소도 정확하므로 지역교회 연결과 관리도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특별히 비전2020사역 기간 중에 육군훈련소는 엄청난 영적 사건의 결실을 맺었다. 지난 1997년 4월 19일에 연병장에서 7,200명 수세결실을 맺었다. 누구도 그 결실을 앞으로는 능가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15년이 지나서 2012년 5월 19일에 9,519명이 같은 장소에서 열린 진중세례식에 참석하여 8,506명이 세례를 받고 1,013명이 축복기도를 받았다는 것을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선택한 장병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신 것이다.

세례예식은 본인이 죄 씻음 받은 표를 받고 완전한 기독교인이 되었음을 만인 앞에서 공표하는 예식으로 그다음부터 더욱 신자다운 신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 가면 된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6-9절 말씀처럼 바울의 씨 뿌림과 아볼로의 물 주는 사역이 소중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새겨야 한다.

## 2) 군인신자 명단수집과 장병 종교전수조사 대비

전도, 세례만큼 중요한 것은 신자관리이다. 군인교회 내에서의 관리와

지역교회로 연결을 위해서도 군인신자카드 작성과 수집은 필수요소이며, 핵심 업무이다.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면 우리는 그를 온전하게 관리하고 양육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신자카드 작성이다. 즉 교적관리이다. 열심히 수고하고 에너지를 투자하여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출생은 시켰으나, 온전하게 관리하지 못하여 잃어버린 양이 된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되고 만다.

지금의 군종정책 중에 각 종교별로 군종장교 정원 분배와 기타 운영 등에 종교별 신자 수가 기준이 되고 있다. 군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장병 종교전수조사’라는 제도를 도입, 전 장병을 대상으로 본인이 서명하는 종교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다. 지난 4년여 통계결과로 군종목사 3명이 증원되었다. 진중세례결실은 선교적 측면만 아니라 군종 정책적 측면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열매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진중세례신자들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 관리의 첫 번째 핵심업무가 ‘군인신자 교적카드’ 수집이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되는 신자카드는 본인으로 하여금 기독교 신자라는 정체성을 심어 주고, 군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전수조사에 바르게 답하여 부가가치를 얻고, 거주지 지역교회로 연결되어 출석예정 교인으로 관리되면서, 그 가족까지 전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비전2020사역의 핵심은 전도세례와 신자카드 작성과 연결, 더 나아가 장병 종교전수조사에까지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연도별 진중세례·명단수집·연결인원·전수조사 인원대비 현황〉<sup>17</sup>

구 분	세례인원	명단수집인원	연결인원	전수조사인원
총 계	2,658,290명	1,715,173명	1,357,800명	746,739명
2012년	177,110명	131,438명	108,562명	180,497명
2011년	184,320명	147,178명	127,285명	171,245명
2010년	182,614명	132,744명	108,035명	200,656명
2009년	171,435명	122,781명	104,393명	194,341명
2008년	174,550명	163,733명	104,234명	
2007년	153,225명	122,637명	105,160명	
2006년	154,808명	146,955명	89,135명	
2005년	162,260명	107,928명	93,212명	
2004년	161,825명	114,434명	100,815명	
2003년	155,767명	92,810명	68,965명	
2002년	182,230명	111,798명	110,248명	
2001년	186,959명	143,996명	102,881명	
2000년	187,156명	128,535명	96,393명	
1999년	216,080명	37,129명	30,430명	
1998년	207,951명	11,077명	8,052명	

상기 도표 현황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진중세례인원만큼 명단수집인원도, 연결인원도, 전수조사인원도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특별히 전수조사인원 현황은 곧 군종정책의 기준치가 되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평소에 보다 더 실무적으로 꼼꼼하고 정밀하게 매뉴얼대로 실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비전2020사역은 매우 건강한 사역이 될 것이다.

### 3) 진중세례신자의 자대 정착과 양육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차이의 핵심 문제점의 원인은 훈련소, 교육사, 신교대, 훈련단 등에서 세례를 받은 훈련병들이 자대로 배속된 후에

<sup>17</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2차 정기총회 보고서」(2013. 2. 21), 68.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자대는 교육부대와 확연히 그 분위기와 생활 시스템이 다르다. 비전2020사역을 실천하는 일반 군선교회원 교회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이 소속부대의 주소 등 빠짐 없는 정확한 기초정보 내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편지와 선물을 보내고 싶어도 주소를 모르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다.

‘비전2020사역’의 알찬 결실과 실천을 위해서는 훈련을 마치고 전입해 오는 진중세례신자인 신병들을 잘 영접하여 자대 군인교회에서 반드시 주일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진중세례신자의 양육의 첫 단계는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앙성장을 위하여 각 교회별 나름대로의 양육 프로그램을 잘 적용하여 자대교회에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 전입해 오는 시점으로부터 처음 3개월 기간 동안은 집중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양육활동으로 정착시키는 데 모든 군인교회들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그 결과는 군인신자 기록카드(교적부)가 제대로 작성되고 부대주소가 있는 기초정보를 군선교연합회에 제공함으로 지역교회 연결과 사랑의 양육 등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결과적으로 군 내부와 군 외부에서 진중세례신자인 초신자들을 향한 입체적인 양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다.

#### 4) 군인교회 영적 부흥을 향한 기도운동 전개

21세기 기독교 운동인 ‘비전2020실천운동’은 현 시점에서의 한국교회와 청년전도 및 영적 부흥운동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확신한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위기를 맞았지만 우리나라 교회는 미국교회나 유럽의 교회들처럼 쇠퇴기를 맞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군선교현장이 없었고, 우리에게는 군선교현장이 역동적이며 생명력 있는 영혼구원 사역의 풍성한 열매와 함께 다음 세대를 향한 유일한 선교적 비전 실현의 원천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상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전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양육) 지키게(실천) 하라”는 말씀, 즉 건강한 교회로 전도와 양육을 실천하는 신자들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의 실천적 프로그램의 첫 번째가 기도이다. 기도 없이는 결단코 이 거룩한 사역을 행할 수 없다. 이 사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기 때문이다. 군인교회를 섬기는 군종목사나 군선교 교역자, MCF 회원, 가족, 신우형제 등의 기도운동으로부터 다시 한 번 진중에 비전2020사역의 불을 지폈으면 한다.

물론 일반 군선교회원교회도 기도운동이 먼저 되어야 한다.

사람의 일에는 기도가 필요치 않을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모든 비전2020사역자들이 스스로 더 강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원천은 곧 기도이다. 기도하면 책임감도, 지혜도, 담대함도, 연합도, 긍정적인 마음도 얻을 수 있다. 기도하면 비전2020사역이, 진중전도세례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청년전도의 원천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더 강한 확신으로 고백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 2020년까지 남은 7년여 동안 다시 한 번 기도의 불씨를 지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서 펼쳐지도록 정밀한 사역을 빈틈없이 실천해 나가자.

대한민국 1004군인교회의 영적 부흥운동을 5만여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운동으로 이끌어 나가자. 기도할 때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쫓개게 될 것이다. 기도는 분명한 소명의식과 가장 지혜로움으로 사명감을 심어 줄 것이다. 더 강하고 더 선명한 기도야말

로 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의 꺼지지 않는 영적 에너지가 될 것이다.

### 5) 선사인(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은 비전2020사역의 완성

비전2020운동이 영혼구원 전도사역이라면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전우사랑을 실천하여 좋은 군사가 되도록 한다. 교회를 경작하라. 굳은 땅을 갈아엎듯이 먼저 교회를 말끔과 행위사역을 함께하는 옥도로 만들어 교회 되게 해야 비전2020운동의 열매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며 열매를 맺을 것이다.

먼저 교회를 통전적(wholistic) 시각으로 보게 하자.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옆문으로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영혼구원뿐 아니라 육신구원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다.

둘째, 말씀사역과 자비사역을 통해 개인 성장과 교회의 질적 성장이 함께 오게 한다. 그러면 양적 성장도 이루게 된다.

기독장병들이 신행일치(信行一致)의 삶을 살아 건전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갖고 무사고, 무사기한 병영 천국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다음의 매뉴얼을 찾아 숙지한다.

- ① 선한 마음(33): 불쌍히 여기는 마음(그리스도의 사랑)
  - ② 정확한 진단(34): 가까이 접근하여 상태 확인(관심 표현)
  - ③ 응급조치(34): 기름, 포도주를 붓고 싸매(문제해결)
  - ④ 계속치료(34):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 계속 돌봄(지속적 관리)
  - ⑤ 사후관리(35): 주막 주인에게 비용 부담하고 계속 돌볼 것 주문(끝까지 책임)
- 그 일을 위한 천사 역할 실천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인사하기: 먼저 접근하는 당신이 천사(웃으며, 눈을 맞추고, 악수하며, 이름을 부르며 정중하게)

- ② 정청하기: 공감하는 당신이 천사(이입감정을 갖고, 애정을 갖고)
- ③ 동행하기: 함께하는 당신이 천사(위기의 순간에 헬퍼로서)
- ④ 칭찬하기: 격려하는 당신이 천사(낙심 중에 소망을 갖도록)
- ⑤ 선행하기: 구원을 베푸는 당신이 천사(생명구원을 열심히)

1004군인교회 장병들이 진중에서 각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건강한 병영을 조성하는 일에 힘쓰는 천사들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비전2020운동 목표가 달성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화된 통일조국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sup>18</sup>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선사인 사역은 비전2020사역의 완성인 것이다.

## 5. 비전2020운동의 비판적 연구

### 1) 긍정적인 면

#### (1) 연합운동

- 군선교사역은 교회연합, 교단연합, 지역연합, 민·군연합, 기관연합 운동이다.

#### (2) 전도운동

-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전도운동이다.
- 특별히 군선교사역은 유일한 청년전도 대안이다. 다른 대안은 없다. 지상교회의 사명은 불신자 전도이다. 군선교는 생명전도운동이다.

<sup>18</sup> 이종윤, 「군선교신학」10 (서울: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2. 10. 10), 33-34.



### (3) 애국운동

- 20대 청년들에게 바른 신앙으로 인생관, 국가관, 세계관을 정립시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는 애국운동이다.
- 바른 신앙과 바른 습관으로 훈련된 청년들이 사회와 국가의 중심이 될 때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 건설이 가능하기에 애국운동이다.

### (4) 강군육성운동(병영 치유)

-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인 죽음의 문제를 기독교신앙은 부활의 신앙으로 믿게 하므로 승리하는 필승의 강군이 되는 운동이다.

### (5) 민족복음화운동

- 비전2020운동은 민족복음화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한 민족을 바른 신앙으로 이끄는 민족 살리기 운동이다.

### (6) 평신도운동

- 비전2020운동은 공교롭게도 세레(김진영 장로)와 연결(이필섭 장로) 사역 모두 출발점이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장로님들로부터 시작된 평신도운동이다.
- 입대 전 기독교청년들을 군복무기간 동안 평신도 군선교사로 파송하는 운동이다.<sup>19</sup>

## 2) 부정적인 면

<sup>19</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기독교청년들을 군선교사로 훈련시켜 파송함으로 군복무기간 동안에 단순한 군복무가 아니라 군선교사로서 복무토록 권장하며, 구체적인 '군선교사훈련 프로그램'인 '청년비전캠프'를 매월 둘째 주일이 지난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갖고 있다.

### (1) 타 종교와 경쟁

필연적인 사실이며 현실이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는 말씀대로 도덕종교가 아니라 생명신앙이다.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일방적 진리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명제는 영원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이 아니라 필연적 현실일 뿐이다. 진리 안에서 우리 갈 길을 묵묵히 가고 있을 뿐이다.

### (2) Nominal Christian(명목상 신자) 양산

부인할 수 없는 일부 현실이다. 그러나 전체 비율로 볼 때는 미미하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렸으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였기에 자연스럽게 타 종교에 갈 수 있다. 호기심일 수도 있고, 간식 및 이벤트 행사로 인하여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전도의 사명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화할 필요는 없다. 그런 장병들에게는 바른 신앙을 갖도록 인내심을 갖고 계속 양육하면서 인도하면 된다. 기독교 진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피조물이 전도의 대상인 것이다.

## 6. New 비전2020실천운동의 미래전략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고전 3:6)라고 하였다. 비전2020운동의 실천은 1996년 이래 지금까지 씨 뿌리는 일과 물 주는 일에 전력했으나 목표 수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재검토하는 자리에서 인간의 부족을 다시 채우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시고(고전 3:9) 항상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 그러므로 비전2020실천운동은 하나님께서 100% 하신다. 동시에 인간이 100% 한다는 것이 성경원리다. 하나님100% + 인간100%가 비전2020실천운동을 성사시킨다.

### 1) 비전2020실천운동의 미래전략: ABC 3-Pr원리

ABC 3-Pr원리는 Ardent Prayer(열렬한 기도), Biblical Preaching(성경적 설교), Consistent Program(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I) 열렬한 기도(Ardent Prayer)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엡 6:18).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에 맞는 우리의 소원을 성령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경우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마 6:10).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신 주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다(막 9:29).

이제야 알 것 같다. 왜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고 기뻐하시는 비전2020운동을 실천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었는지를 말이다. 열렬한 기도가 우리에게 부족했기 때문임을 고백해야 한다. 부족한 것은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믿음이 부족한 것은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

#### ① 365일 새벽기도회

천사(1004)군인교회는 365일 새벽기도회 시 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한 기도를 씬 없이 해야 한다.

#### ② 홍해작전

매년 6월 6일(현충일)부터 6월 25일(6·25한국전쟁) 20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열어 홍해작전을 시행한다.

-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건너야 할 홍해와 동일시하고 기도와 말씀작전으로 홍해를 건너는 작전을 전 군부대교회가 시행한다.
- 나라와 부대의 당면한 문제 그리고 지휘관과 부대와 전우의 안녕을 위하여, 비전2020운동 전도대상자를 위한 특별기도제목 등을 5개 내지 10개 이내로 정하여 기도카드를 만들어 기도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열열이’ (오전 10시, 오후 10시, 2분씩) 기도하게 하고 새벽에 함께 기도한다.
-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기도합주단 조직  
2020년까지 연속 기도하는 기도합주단을 모아 제대 후에도 기도 동지로 계속 ‘열열이’ (오전 10시, 오후 10시, 2분씩) 기도하는 그룹으로 만든다.  
기도합주단 이름은 각각 자기들이 지어 붙인다. 기도합주단 구성요원은 계급이나 지위 상관없이 기도 동역자로 5-10명 내외로 한다.  
이와 같은 기도운동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지속성이 요구된다. 다른 이를 위한 도고를 해야 하므로 희생정신이 있어야 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골 4:2-3).

## d. 협력교회 기도지원

군선교 지원(협력)교회들로 하여금 군인교회가 시행하는 홍해작전 기간(6.6-6.25) 동안 함께 같은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연 결고리는 부대 군목(군선교사역자) 책임하에 지원(협력)교회에 기도요 청서를 적어도 홍해작전 1개월 전(5월 5일 이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2) 성경적 설교(Biblical Preaching)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딤후 4:3-4).

세상 이야기와 철학을 설교로 둔갑시켜 선포하는 이 시대의 강단이 변해야 한다. 시간과 공간이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다. 신세대 젊은이들이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와 가치관에 몰들었다고 성경 이외 다른 복음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즉 성경만으로 전도, 교육, 개인과 사회변화를 시키는 데 충분하다는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sacra scriptura sui ipsius interpres)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즉 종교개혁자들의 해석방법으로 정확무오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

심리적, 사회학적, 문화적, 인류학적 접근법을 사용한 설교는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kerygma)가 아니다. 성경적 설교를 선포함으로 군인교회의 목회가 말씀 중심의 사역으로 상승케 된다. 군목(군선교사역자)들의 설교를 성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의 것들을 제시한다.

## ① 강해설교 방법 특강을 통해 사역자들로 하여금 성경적 설교자로 다

시 나게 한다.

2박 3일 기간 중(1일 8시간×3일=24시간) 66권 성경 중 1권을 끝내는 Practicum까지 한다.

② 1,000편의 강해설교집(각 설교 편당 A4 1page 분량)을 출판하여 군목(군선교 사역자)들의 설교사역을 돕는다.

성경적 설교와 성경공부가 개인 심성을 치유 또는 변화시키고, 부대와 부대교회를 새롭게 갱신시킨다.

## (3)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Consistent Program)

교회 프로그램은 회중의 신앙을 갱신시키고 복음증거자로서 성도들을 전군복음화에 기여케 한다. 교회 프로그램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되 3개의 E기둥을 세운다. 3개의 E기둥이란 Education(교육), Evangelism(전도), Expenditure(낭비)를 하는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① 크리스천 교육—하나님의 말씀(christian education of the whole christian leaders)/양육사역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을 먹이고 치는 일은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사역자들의 중요한 사명이다. 교회 교육의 목적은 첫째, 거듭난 인간, 둘째, 성숙한 신자, 셋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양성에 있다.

거듭난 성도가 미숙아처럼 자기만 돌보라고 하면 문제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으로 살 수 있는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군인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여 주어야 하고, 군인교회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한다.

② 전군복음화—하나님의 뜻(evangelization of the whole ROK)/전도사역

모든 민족(whole nations)에게, 분부한 모든 것(복음, whole gospel)을, 모든 교회(whole church)가, 세상 끝 날까지(시간적 끝까지), 땅 끝까지(공간적 끝까지) 전파할 것을 우리 주님은 명령하셨다.

군인교회 모든 신자들이 전도자의 사명감을 갖고 각 교회별로 전도배가 운동을 실천한다.

비전2020운동은 전군신자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운동이다.

③ 거룩한 낭비—하나님의 사랑(holy expenditure of the whole believers)/선샤인 사역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 부음으로 왜 낭비하는가(마 26:6-13)라는 제자들의 불만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녀를 칭찬하시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하라고 하셨다. 거룩한 낭비는 오늘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이웃 사랑의 방법이다. 군선교사역 중 선한 사마리아 운동이 바로 거룩한 낭비 운동이다. 이 구제사역, 사랑사역을 통해 듣지 못한 이를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한 이를 보게 하신 주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하고 듣게 해야 한다.

## 2) 지휘관 협력을 유도

① 예비역 전 지휘관들로 하여금 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부대를 예배하게 한다.

이러한 일을 통해 부대장으로 하여금 부대원의 신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군중 업무 협조를 부탁하게 한다(한국군선교연합회에 특별 부서를 설정하여 가급적 예비역들이 전에 근무하던 부대를 방문하도록 하거나 지휘관과 인적 관계를 배려하여 연결시킨다).

② 국방부, 삼군 본부 등도 방문하여 격려한다.

## 3) 일반교회 협력을 유도한다.

① 비전2020실천운동 교회로 지정한 교회를 활성화하고 확장한다.

② 협력교회 내 기도합주단을 조직한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기도합주단을 협력교회에서도 여러

그룹으로 조직하게 하여 ‘열열이’ (오전 10시, 오후 10시, 2분씩) 기도하게 하고 매달 1,000원씩 헌금하게 한다.

## 7. 실제적 제안(Practical Suggestions)

한국교회는 비전2020실천운동이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21세기 기독교 운동으로서 국가 차원의 애국애족운동이요, 군 차원에서는 신앙전력화운동임을 선포하였다. 여기까지 속 사도행전의 사역을 이끌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드리자. 무조건 긍정적 측면에서 그동안의 사역 내용들을 살펴보자. 무조건 꾀대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여 헌신하는 1004군인교회, 4천여 군선교회원교회, 군종목사 파송 11개 교단, 군선교 유관기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중앙본부를 비롯한 국내외에 있는 지회에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한다.

하나, 비전2020실천운동이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으로서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거룩한 사역임을 믿고 열매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다시 한 번 새 마음과 각오로 2020년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자. 다시 한 번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는 사명감을 회복하고 결단하여 더 강하게 실천하자.

둘, 1004군인교회는 군종목사, 군선교 교역자, MCF 임역원 및 회원, 군종병을 비롯한 신우형제들이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세례를 집례하고 명단을 수집하여 군선교연합회로 보내고 전입해 오는 군세례신자 신병의 자대에서의 빠른 정착과 지역교회로의 연결을 위해 군인교회용 비전2020실천 프로그램인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사항’을 반드시 실천하자. 특별히 신자카드, 즉 교적부 관리를 확실히 하고 완전한 행정업무 관

리로 비전2020사역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자. 진중세례신자를 지역교회로 연결할 때 부대주소가 있는 자료만을 연결하도록 하자.

셋, 약 4,000 군선교회원교회는 담임목사를 비롯한 모든 제직들과 군선교사역 담당자들이 비전2020사역에 대한 선교적 비전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실천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만들자. 청년전도에 있어서 유일하게 살아 있는 곳임을 알고 고린도전서 3장 6-9절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자.

넷, 진중세례신자 수, 장병 종교전수조사 수, 명단수집 및 연결신자 수, 결연된 신자 수가 동일하게 되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매뉴얼대로 책임 있는 임무수행에 최고, 최상의 역할을 반드시 실천하자.

다섯, 장병영혼구원 사역인 ‘비전2020실천운동’ 과 ‘좋은 군사’ 로 만들자는 ‘선샤인 사역’ 이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한국교회 재부흥의 역사를 창출하는 선교적 전략전술이 되도록 기도사역을 실천하여 새 역사를 만들어 가자. ‘비전2020사역’ 과 ‘선샤인 사역’ 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역이 되도록 하자. 그 중심에 우리가, 내가 있도록 하자.

여섯, New Vision 2020운동 ABC 3-Pr원리를 실천하여 2020년까지 민족 75%를 복음화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일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Soli Deo Gloria) 죽도록 충성하자.